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</b> 
	배포일시	2018. 1. 11(목)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 산업입지정책과	담당자	•과장 표용철, 사무관 김동현 •☎ (044) 201-3663, 3683	
보도일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“판교 2밸리 입성, 중소·벤처기업엔 문턱 높다” 보도 관련

□ ‘판교 2밸리’ 에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아이디어만 보유한 소규모 벤처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(시세 20~80%)로 입주할 수 있는 ‘공공 임대 창업공간’을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\* 기업지원허브(LH, 240개), 기업성장센터 5개동(LH, 경기도, 700개), ICT 융합센터(성남시, 60개), 글로벌 Biz센터(경기도, 100개) 등 1,200개社 규모

□ 다만 벤처·혁신타운의 경우, 사업화에 성공을 거둔 선도벤처,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용지로 창업기업 육성 등 공공기여\*가 가능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지분율(10%) 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.

\* 입주 선도기업이 액셀러레이터, 교육센터 설립·운영, 임대공간, 공용Lab 등 조성

○ 벤처타운은 공간의 30%가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,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아도 입주가 가능합니다.

○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\*할 예정이므로, 중소 벤처기업들도 임대형태로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.

\* 혁신타운 부지공모 시, 중소벤처기업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1순위 자격 부여

< 보도내용 (1.11, 머니투데이) >

◆ 판교 2밸리 입성, 중소·벤처기업엔 문턱 높다(머니투데이)

- 정부가 창업·혁신생태계로 조성 중인 판교 2밸리 부지공급에 중소·벤처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자본력을 요구해, 기업입주 의지를 꺾고 있음
- 판교 2밸리 벤처타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주에 응모해야 하는데, 지분율 10% 이상을 확보한 기업만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동현 사무관(☎ 044-201-366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